

손잡고 2기 보고서¹⁾에 대한 반박문 (2016년 8월 20일)

한 홍 구(전 <손잡고> 운영위원)

<손잡고>는 2014년 2월 한국 사회의 지식인과 시민운동가 550 여 명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모인 단체이다. 본인(이하 한홍구 또는 한홍구 전 위원으로 기술)은 이 단체의 구성을 하종강 선생과 더불어 처음 발의했고, 이후 1기 사무국에서 상근 운영위원회로 단체의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 2016년 4월 출범한 <손잡고>의 2기 운영진은 1기 운영의 실무를 맡은 한홍구가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를 부당해고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문건을 일부 시민단체에 공개하였고, <한겨레>는 이를 받아 다음날인 7월 22일 10면 톱기사로 보도하였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인 인권중심사람 연구소장 박래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박병우, 공익인권법재단 공가 변호사 윤지영 등 3인 명의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너무나 심각한 사실의 왜곡과 편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군다나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 당사자인 한홍구에게는 한 마디 질문도 확인도 하지 않았고,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조차도 검토하지 않은 채 한홍구에 대한 명예살인을 시도하였다. 이에 본인은 구체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손잡고> 측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민사회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 2기 <손잡고> 운영진과 보고서의 집필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손잡고> 측 보고서는

1. 보고서를 내면서
2. <손잡고>와 한홍구 전 위원과 관계
3. <손잡고> 사무국 운영에서 나타난 한홍구 전 위원의 독단과 전횡
4. <손잡고> 활동가의 부당해고 문제
5. 시민사회에 드리는 제안

등 5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의 반박문은 2항부터 시작하여 사실관계의 착오와 오해,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자 한다.

<손잡고> 측 보고서 2항 “<손잡고>와 한홍구 전 위원과 관계”에 대하여

<손잡고> 측 보고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홍구 전 위원 <손잡고>를 제안하고 단체의 출범을 주도하였다. 한홍구 전 위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의 패배 직후 언론과 행한 인터뷰²⁾에서 노동과 시민사회가 분리되었고,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의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문제가 이 지경으로 악화된 것을 한국사회 지식인의 지적 태만으로 지적했다. 한홍구 전 위원은 자신이 관계하던 평화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문제를 노동문제 전문가인 하종강

1)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관련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 2016년 7월 20일
2) (별첨 1: “박근혜 시대, '정수장학회 저격수' 한홍구를 만나다-한홍구 정수장학회 공대위 집행위원장, <미디어오늘> 2013년 1월 10일)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0>

선생과 지속적으로 상의하였으나, 둘 다 한 달 20-30여회의 외부 강연을 소화해야 하는 처지라 구체적인 실천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2013년이 저물도록 중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에서 계속 자살자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이 방치되어 있어 연말, 또는 연초에 이들과 가족들에게 시민사회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떡국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야 하지 않겠냐며 마음을 모았고 이선옥 작가에게 실무를 부탁하였다. 논의과정에서 떡국프로젝트와 같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말고 시민사회와 노동의 만남을 모색하는 사회기구화 하자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 사실 한홍구, 하종강, 이선옥 세 사람도 전화와 이메일로 소통하고 같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없어 2014년 1월 24일 회의를 하기로 하고 뜻을 같이 할 만 한 몇몇 분에게 더 연락을 취하였다. 평화박물관에서 열리기로 한 이 첫 모임이 마치 기구를 정식으로 발족하는 모임처럼 <한겨레>와 <경향>에 잘못 보도되었다.³⁾ 사실 준비가 극히 부실하였지만,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심경으로 손잡고의 발족을 추진하였다. 한홍구 전 위원은 원래 조국 교수 등과 함께 손잡고의 대표를 맡는 것으로 이야기 되었으나, 1월 24일 모임 직후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이 집단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한홍구 전 위원은 조직의 전면에서 물러나 대표 대신 운영위원을 맡게 되었다. 발기인 500여 명 중 350여명은 한홍구 전 위원이 직접 모집하였다.⁴⁾

손잡고 모임이 구체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당분간 실무를 맡기로 한 이선옥 작가에게 지불할 활동비를 한홍구 전 위원이 500만원, 하종강 선생과 지인이 300만원을 내어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손잡고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민주당 각 의원실에서 도합 300만원, 정의당 70만원, 민주노총 60만원 등이 들어와 초기 비용으로 삼았다. 이선옥 작가는 처음부터 당분간만 활동하기로 하였기에 새로운 활동가의 충원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당시 손잡고는 아무런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한홍구 전 위원의 제안에 따라 2014년 총회와 이사회에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한 평화박물관은 손잡고 사업을 주요 연대사업으로 채택하고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평화박물관은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손잡고에 담당활동가를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한홍구 이사가 손잡고의 상근 운영위원으로, 석미화 사무처장이 손잡고의 사실상의 사무처장으로 기능하였다. 이후 손잡고가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CMS 후원체제가 갖추어지기 전까지 소요되는 경비의 상당 부분도 평화박물관의 재정에서 충당되었다.

<손잡고> 측 보고서가 지적하는 바 “한홍구 전 위원은 갖 출범한 <손잡고>가 독자적으로 활동가를 두고 사무실을 운영할 역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손잡고? 1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쓰고 있다. 여기서 활동가의 제공이란 평화박물관이 사무국 기능을 맡고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를 손잡고 일에 배치한다는 뜻이다. 손잡고 입장에서는 활동가를 독자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박물관으로부터 파견받아 손잡고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손잡고> 측 보고서 3항 “<손잡고> 사무국 운영에서 나타난 한홍구 전 위원의 독단과 전횡”에 대하여

3) 별첨 2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3의 하종강 선생의 글과 한홍구 교수의 입장문을 볼 것.

<손잡고> 측 보고서는 “사무국의 1인 활동가는 <손잡고> 업무의 과중함을 한홍구 전 위원에게 계속 호소하였고, 사무국의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묵살당하거나 계속 지연되었다”고 쓰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이사는 평화박물관 활동가를 추가로 충원하여 손잡고에 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이 기간 평화박물관의 기존 활동가의 업무 분장을 조정하여 손잡고 일을 돕도록 하기도 하였고, 또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 기금을 배분할 때는 장기에 걸쳐 윤지선 활동가의 친구를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다. 2015년 6월 경 이 아르바이트생을 활동가로 정식 충원하는 것을 모색하였으나 그가 진학 등의 이유로 채용에 응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윤지선이 학교 후배 최OO를 추천하여 2015년 1월 한홍구 이사가 석미화 사무처장과 함께 면접을 보았으나 두 사람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 그 무렵 또 다른 후배를 추천하여 면접을 보고자 하였으나 그가 국회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무산되었다. 이 때 윤지선은 한홍구 교수에게 “괜찮은 남자활동가 찾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긴가봐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한홍구 교수는 손잡고 사무처의 독립을 위해서는 윤지선 보다 연배가 어린 활동가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더 경험이 많은 사무국장 급을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윤지선이 나름 열심히 하기는 하였으나 시야가 좁고, 노동 현장만 쫓아다닐 뿐 시민과 노동의 만남이라는 손잡고 원래의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무국장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과 시민을 연결할만한 연륜과 경험을 가진 활동가를 사무국장급으로 영입하기 위해 3-4인을 접촉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의 단체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사항이 많다. 한국의 시민단체 중에는 처음부터 독립된 단체로 출발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체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다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 평화박물관의 전신인 베트남전 진실위원회는 국제민주연대에서 독립한 단체이고, 국제민주연대는 또 참여연대의 국제인권센터가 발전적으로 독립한 조직이다. 이런 과정을 경험한 한홍구 이사는 손잡고가 하나의 단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준비를 진행 중이었다. 특히 재정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CMS 회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1기 운영위원 중 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사람은 한홍구 이사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홍구 이사가 손잡고를 평화박물관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했다는 손잡고 측 보고서의 주장은 악의적인 사실왜곡이다. 윤지선 활동가는 자신이 마치 손잡고 독립운동을 했고 평화박물관이 이를 억압한 듯 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윤지선이 손잡고의 독립을 주장한 것은 2015년 2월 손잡고가 평화박물관 이사장 이해동 목사의 부인 이종옥 여사가 이사로 있는 <사랑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고공농성 현장노동자들에게 떡국 보내기 사업을 하면서부터이다. 생고기가 든 떡국 세트를 제때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보내려다 보니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지출되게 되었는데, 평화박물관 사무처에서는 당연히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부담스러워 하였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석미화 사무처장과 윤지선 활동가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하였는데, 윤지선은 사무처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나 감독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손잡고의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손잡고 측 보고서는 “한홍구 전 위원이 각종 강연과 기고활동을 통해서 회원을 확보하는 일에 열성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은 <손잡고>라는 단체의 회원 확보를 통한 물적 토대의 구축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손잡고는 일시납 1,100여만원, 월납 CMS 회비 460여만원 (중도해지자 제외하면 2015년 7월 현재 약 350여만원)을 모았는데, 이의 90퍼센트 이상은 한홍구 교수의 강연과 기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회원을 제외한 450여 명의 CMS 회원 중 40-50명 가량을 서해성 운영위원이 받아왔을 뿐 나머지 전원은 한홍구 이사가 40여 차례의 강연을 통해 후원약정을 받아왔다. 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의 상당수도 한홍구 이사의 강연이나 기고문을 통해 회원이 되었다. 2014년 7월 19일 한홍구 이사가 <한겨레>에 “진보하는 야만에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는 글을 기고한 직후 <손잡고> 후원금이 답지하자 윤지선은 “한겨레 기사 나간 이후 19일-오늘 12시까지 총 121건 / 8,727,000원 후원 들어왔습니다. 한홍구 선생님 글 최고예요!!”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다. 이런 작업이 손잡고가 하나의 단체로 자립하기 위한 물적 토대의 구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손잡고 측 보고서에서 손잡고의 재정이 “평박의 재정과 혼재하여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관리를 어렵도록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손잡고는 법인도 아니었고, 출범 당시 독자적인 CMS 계좌를 열 형편도 아니었기에 평화박물관의 CMS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형식상으로는 평화박물관의 여러 사업 중 <손잡고> 사업을 후원하는 형식으로 별도로 후원자를 받은 것이다. CMS 수입에서도 이는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CMS 로 입금된 돈이 입금되면 평화박물관 사무처에서는 이를 반헌법, 손잡고, 베트남, 평화박물관 등 4개의 사업별 통장으로 배분하여 각각 사용하였기 때문에 재정이 혼재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만 2015년 상반기에 평화박물관이 케테 콜비츠 전시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초청과 같은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로 CMS 배분이 한두 달 늦어진 적은 있었지만, 재정의 투명성이 문제될만한 일은 전혀 없었음을 밝혀둔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잡고의 재정 계획과 지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면서 석미화 사무처장이 재정지출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조직에는 위계가 있는 법이고 재정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한홍구 이사-석미화 사무처장-윤지선 활동가로 이어지는 계선 구조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윤지선 활동가가 이런 정상적인 재정의 집행구조를 불편해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반조직적 태도였다.

손잡고 측 보고서 4항 “<손잡고> 활동가의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손잡고 측 보고서는 윤지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 써 “활동가 해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손잡고 재정의 독립과 투명성을 요구하였던 바, 활동가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원인으로 활동가가 결국 해고당한 상황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해고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고 쓰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

윤지선은 2015년 7월 7일 석미화 사무처장에게 9월 노란봉투 사업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음날인 7월 8일에는 한홍구 이사와 함께 굴뚝 농성 중인 스타 케미컬 노동자 차광호 씨를 응원하기 위해 구미에 출장을 다녀왔으나 이때는 사임에 대한 일체 이야기가 없었다. 7월 9일 석미화 사무처장으로부터 윤지선 활동가가 사의를 밝혔다는 보고를 받은 한홍구 이사는 윤지선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지선은 석미화 사무처장과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재차 사직의사를 밝혔다. 한홍구 이사는 윤지선 활동가의 사임 의사를 만류하며 석미화 사무처장의 문제점은 따로 면담하여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윤지선 활동가의 문제점으로 평화박물관 활동가이면서 평화박물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점을 다시 지적했다. 이 사안은 2015년 2월 떡국 행사 이후 한홍구 이사가 윤지선 활동가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질책한 사안이었다. 특히 2015년 4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초청행사 당시 참전군인 1천 명이 평화박물관으로 쳐들어 온다고 하여 조직에 비상이 걸렸을 때 혼자 휴가를 내겠다고 한 일로 석미화 사무처장의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한홍구 이사가 면담 과정에서 윤지선 활동가에게 평화박물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충고하자, 윤지선은 자신은 평화박물관 활동가가 아니라 손잡고 활동가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한홍구 이사는 자신과 석미화 사무처장이 2014년 5월 말 윤지선의 면담을 볼 때 분명히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뽑았음을 상기시켰으나 윤지선 활동가는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채용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한홍구 이사는 자신이 윤지선을 분명히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뽑았고, 윤지선은 평화박물관에서 월급을 받았고, 평화박물관 사무처 회의에 참석해 보고하였다는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더하여 한홍구 이사는 손잡고의 운영진 어느 누구도 윤지선을 <손잡고> 활동가로 뽑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윤지선 활동가는 여전히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홍구 이사는 어처구니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그렇다면 좋다. 여태까지는 아니었다고 치자. 그러나 윤지선 활동가는 현실적으로 평화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평화박물관 사무처 회의에 참가하여 업무보고하고 업무지시 받고 있다. 또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이 손잡고 사무처장직을 겸임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고하고 손잡고 사업을 총괄해 온 현실에서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으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윤지선 활동가는 평화박물관에 재입사하여 평화박물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손잡고에 파견 나가 근무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윤지선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한홍구 이사는 외부강연 때문에 윤지선 활동가에게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오후 5시 경 천안 강연을 위해 사무실을 떠났다.

동일 오후 5:47 경 석미화 사무처장이 한홍구 이사에게 전화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한홍구 이사가 전화하자 석미화 사무처장은 조은 대표가 석미화 사무처장에게 전화하여 윤지선 활동가도 그만두고 자신도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한홍구 이사는 즉시 조은 대표에게 전화하여 석미화 사무처장에게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윤지선 활동가에게 평화박물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했을 뿐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한홍구 이사가 20분 가까이 통화하면서 여러 차례 윤지선 활동가도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고 조은 대표께서도 대표직을 사임할 사안이 아님을

설명 드렸으나, 조은대표는 완강하게 윤지선도 그만두고 당신도 그만두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이에 한홍구 운영위원은 윤지선 활동가의 사직 문제는 평화박물관 사무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나 대표의 사임 문제는 상근 운영위원과 사무처장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조은 대표는 당신의 사임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겠다고 동의했다. 한홍구 이사는 오후 6시경 서해성 손잡고 운영위원에게 전화하여 조은 대표의 사임의사를 만류해 줄 것을 부탁했다. 석미화 사무처장은 조은 대표와 통화한 후 윤지선 활동가에게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였기에 이렇게 조은 대표가 사퇴한다고 하시는가 물었으나, 윤지선 활동가는 본인이 그만둔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대화를 지속하기를 거부했다.

7월 10일 금요일 오후 한홍구 이사는 석미화 사무처장이 배석한 가운데 윤지선 활동가에게 조은 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진짜 사직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두 차례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지선은 두 번 모두 그만두겠다고 답변했다. 윤지선 활동가는 노란봉투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9월 경에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한홍구 운영위원은 어차피 그만둘 것이면 사무처에서 후임자를 정할 것이니 석미화 사무처장이나 후임자에게 빨리 인수인계하라고 권유하자 윤지선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홍구 이사가 윤지선에게 인수인계서 작성에 얼마나 걸리는가 묻자, 윤지선 활동가는 하루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홍구 이사는 업무뿐만 아니라 사람들 연락처와 관계까지 인수인계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에는 어려울 것이니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하고 면담을 마쳤다. 이날 오후 6:30경 한홍구 운영위원이 베트남 평화기행팀 강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윤지선 활동가는 평상시처럼 퇴근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퇴근했다.

7월 13일 월요일 출근한 윤지선 활동가는 인수인계 문건 석미화 사무처장에게 전달하면서, 문서 말미에 본인 해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건의사항으로 제출하였다. 이에 석미화 사무처장은 이것이 사임이지 왜 해임인가 반문하며 다시 작성해 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지선 활동가는 ‘문서를 안 받아도 소용없다. 이메일로 이미 보내놓았다’는 말을 남기고 퇴근해 버렸다. 이날 밤 석미화 사무처장은 윤지선이 2014년 6월 30일 평화박물관 활동가로서 근로계약서⁵⁾를 작성한 사실을 문서와 함께 한홍구 이사에게 보고했다. 한홍구 이사는 이 사실을 조은 대표에게 문자로 근로계약서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이수호 대표와 고광현 대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윤지선은 7월 13일 퇴근하면서 본인의 대체휴가일수 10일과 연차휴가 14일 반을 쓰겠다는 내용을 인수인계서 건의사항에 함께 제출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다. 7월 15일 밤, 한홍구 이사는 손잡고 이수호 대표, 고광현 대표와 통화하여 7월 16일 아침 7시30분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7월 16일 아침에 열린 긴급 운영위원회에서는 윤지선 활동가 소속은 평화박물관임을 명확히 하고 다시 출근하여 노란봉투 캠페인 사업까지 완료할 것을 결정했다.

5) 별첨 #4

긴급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손잡고 긴급운영위원회의

2015. 7. 16 (목) 오전 7:30 손잡고

참석: 조은, 고광현, 이수호, 한홍구, 서해성, 석미화, 차홍선

안건

1. 윤지선 활동가 관련 경과보고(윤지선 활동가 건의사항 전달)
2. 손잡고 활동과 소속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3. 해결방안

논의결과

1. 윤지선 활동가 사의 표명과 관련한 공방은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손잡고 활동가 소속과 관련해 손잡고 1차 운영위원회 회의(2014.3.28.)록 3항 1) 운영비 마련 방안 중 '사무실과 활동가는 평화박물관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활동가 계약서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현재 소속과 관련한 공방은 마무리 짓기로 함. 다만 향후 손잡고와 평화박물관의 관계정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3. 윤지선 활동가가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청.
4. 윤지선 활동가에게 운영위 회의 결과를 이수호 대표가 전하고, 한홍구 운영위원이 윤지선 활동가와 직접 소통해 평화롭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하고 받아들임.
5. 조은 대표, 서해성 운영위원 사퇴의사 밝힘.

위의 내용 중 “윤지선 활동가 사의 표명과 관련한 공방은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함”이라고 결정한 것은 손잡고의 긴급 운영위원회다. 손잡고의 긴급 운영위원회는 윤지선이 손잡고 소속이 아니라 평화박물관이 채용하여 손잡고에 파견한 평화박물관 소속 활동가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손잡고 운영위원 중 누구도 손잡고를 대표하여 윤지선을 직접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또 윤지선과 평화박물관이 체결한 계약서가 명백히 존재하는 만큼, 윤지선의 주장과 달리 평화박물관 소속 이라는 사실을 운영위원 전원이 확인한 것이다. 또한 긴급운영위원회는 윤지선의 요청대로 9월까지 노란봉투 캠페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5년 7월 시점에 윤지선은 해고된 사실이 없다.

당시 평화박물관 사무처장 석미화가 한홍구 이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여 윤지선에게 보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7월16일 손잡고 운영위원회는 윤지선 활동가가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여 9월까지 노란봉투 캠페인을 마무리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7월9일 한홍구 운영위원, 석미화 사무처장, 윤지선 활동가가 회동한 자리에서 윤지선 활동가가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해고통보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한 것이며 윤지선

활동가가 오해를 풀고 일상업무에 빨리 복귀하라는 뜻입니다.

- 이 사실을 이수호 대표께서 충분히 전달했을 것이고, 이수호 대표의 말씀이 운영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른 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윤지선 활동가에 대한 해고통보는 없었으며 윤지선 활동가가 본인이 원하는대로 9월까지 노란봉투 캠페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향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수호 대표가 여러차례 간곡히 전달하였으나 윤지선 활동가는 복귀를 하지 않고 있고, 한홍구 운영위원은 사무실에 나와서 오해가 있으면 만나서 풀자고 만남 시간을 잡자고 제안하였으나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7월 30일 사무처는 윤지선 활동가에게 8월3일부터 정상 출근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보고서는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고 윤지선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거하여 윤지선이 2015년 7월 한홍구 교수에 의해 부당해고된 것처럼 쓰고 있으나 평화박물관에서도 손잡고에서도 2015년 7월 시점에 윤지선은 해고된 바 없다.

2015년 9월 1일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손잡고 18차 운영위원회의는 아래와 같은 5개항을 결정하였다.

- CMS 현황보고에 대해, 8월까지 배분을 완료하고 이후에도 CMS배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한다.

- 손잡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9월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손잡고 2기 체제에 대한 안을 9월 말까지 준비하고 10월 논의를 거쳐 11월 2기 체제를 출범시킨다.

- 2기 출범 전까지 이수호 대표가 운영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을 마무리한다. 윤지선 활동가에 대한 평화박물관 파견 고용계약은 9월로 종료하며, 2기 체제출범 전까지 손잡고에서 고용하여 노란봉투캠페인 잔여업무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한다.

- 지난 8월 4일 긴급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조은 대표와 서해성 운영위원 사임의사를 확인하다.

- 차기 운영위원회 회의는 10월 1일 조찬(7시 30분) 모임으로 하되 조국 대표와 하중강 운영위원, 좌세준 운영위원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위 세 번째 항목은 손잡고 운영위원회가 평화박물관에 윤지선과의 고용관계를 9월로 종료해 달라고 요청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윤지선이 평화박물관 소속이고, 손잡고 운영위원회도 이 사실을 7월 16일 긴급운영위원회에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평화박물관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 평화박물관은 9월 11일자로 윤지선과 평화박물관이 맺은 고용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예고하는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별첨 #4) 손잡고 운영위원회는 11월 2기 체제 출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윤지선을 아르바이트 신분으로 채용하여 잔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 보고서는 “(...) 활동가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라 함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뜻하는 바, 해고됨에 있어 활동가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한홍구 전 위원은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해고 직후 벌어진 여러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자발적 퇴사라고 할 수 없다.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의 아무런 결의도 없이 임의로 활동가를 부당해고 한 책임은 전적으로 한홍구 전 위원에게 있다고 판단된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채용되어 평화박물관에서 급여를 받고, 평화박물관의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여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평화박물관 활동가가 갑자기 평화박물관 활동가가 아니라며 조직을 혼란에 빠트린 것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1기 운영위원회의 아무런 결의도 없이 임의로 활동가를 부당해고”하였다 하나 이는 명백히 손잡고 18차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화박물관이 윤지선에게 계약종료를 통고한 것이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 보고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 <손잡고> 측 보고서는 윤지선 활동가가 “한홍구 전 위원 개인의 업무까지 지시를 받아서 수행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평화박물관이 2014년 말 경교전에서 작전지휘권 문제와 관련된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윤지선 활동가가 이 업무를 담당했을 때 한홍구 전 위원이 자료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개인의 업무가 아니었다. 이 밖에 <손잡고>의 캠페인으로 연극 <노란 봉투>를 공연할 때, 윤지선 활동가는 수시로 한홍구 교수에게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주거나 뒤풀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고, 자주 <손잡고>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늘 격무에 시달리던 한홍구 전 위원이 일이 밀려 가기 어렵다고 하면 자신이 도와줄 터이니 대신 꼭 <손잡고> 관련 행사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 두 차례 자료조사를 도와준 일이 있을 뿐이다. 윤지선 활동가는 어떤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받았는지, 그리고 만약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윤지선 활동가와 주고 받은 메일이나 문자 어디를 봐도 개인업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와 평화박물관의 관계

윤지선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 팀으로서의 손잡고는 가수 이효리 씨의 정성스러운 손편지의 힘을 입어 기대 밖의 성과를 거두었으니 이제 그만 해산하자는 주장도 안팎에서 상당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손잡고를 출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평화박물관과 한홍구 운영위원은 아직 한국사회에 노동과 시민사회의 만남을 위해,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극복을 위해 할 일이 많은데 1기로 종료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빠지고 2기를 새롭게 출범시키자고 제안하였다. 2015년 10월 20일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손잡고 19차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다.

- 조국 공동대표 ‘손잡고 운영위원님께 올리는 글’ 공유(서해성 작가와 의견 교환하여 세 가지 제안을 이메일로 전달함)
- 1. 제1기 운영위원과 사무국은 전원 사퇴한다.

2. 제1기 운영위원회는 ‘손잡고’ 제2기를 맡길 제3의 단체를 합의 결정한다.

예컨대 ‘인권재단 사람 등

3. 서해성과 조국은 제2기 운영위원회 활동에 한시적으로 협력한다.

- 조국 공동대표 제안에 전체 동의함. 다만 ‘1항’에 ‘2기 체제 출범 전까지 사퇴한다’로 정정하며 사퇴 시점은 2기 체제 출범 직전으로 함

- 2기 체제 출범 준비는 조국 공동대표와 서해성 전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10월 말까지 전체 운영위원은 2기 준비에 대한 단체, 사람, 운영에 관한 제안을 하도록 함.

- 한홍구 운영위원은 ‘손잡고 2기 운영 제안서’(A4 2장)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기존 활동이 손배문제에 대한 대응과 노동현장에 초점을 맞췄으나 2기 체제는 현 정부의 노동계약에 대한 대응으로 폭을 넓히고 시민사회에 무게중심을 두어 활동할 것을 제안함. 손잡고가 독립단체로 나아가기에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으며, 평화박물관이 손잡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망있는 제3단체에 활동을 맡기도록 하자는 제안. 추천단체로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인물로는 노동문제에 오랜 활동을 해 온 가톨릭대학교 조돈문 교수 추천.

-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은 이수호 대표와 석미화 사무처장, 윤지선 활동가가 마무리 짓도록 함

- 윤지선 활동가와 손잡고 사이에 작성한 고용계약서는 지난 18차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2기 체제 출범 전까지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절차로 진행한 것임을 확인 함

-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는 19차로 운영위원회회의를 마감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 함

1항의 “제1기 운영위원과 사무국은 전원 사퇴한다”는 것은 윤지선도 손잡고에서 물러난다는 것을 운영위원회가 확인한 것이다. 한홍구 운영위원은 손잡고를 발의하고 재정과 운영을 책임져 온 입장에서 평화박물관과 자신이 손잡고 활동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아쉽지만, 운영능력과 책임성을 갖춘 단체가 사무국을 맡는다는 전제 하에서라면 문제 당사자들이 빠지고 손잡고가 새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19차 운영위원회에서 한홍구 운영위원은 <손잡고 2기 운영제안서>(별첨 #5)라는 글을 통해 손잡고 2기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제안하면서 2기 손잡고의 활동방향, 재구성방향, 1기가 이관하여야 할 자원, 2016년 사업계획 등을 제안하였다.

손잡고 2기의 구성에는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기 대표나 운영위원 중 몇 분은 2기에도 참여하거나 최소한 2기의 출범까지는 책임을 맡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 은수미 의원과 운영위원직을 사임하였지만 서해성 작가, 손잡고의 창립 공동발의자 2인의 한 사람으로 운영위원직을 공식 사임한 것은 아니지만 1기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하종강 선생 등이 2기 출범의 주체로 거론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홍구 운영위원은 평화박물관도 참여 안하지만 2기에서는 1기 활동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윤지선은 9월 말로 모든 활동을 종료하고 2기 사무국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해성, 조국 등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2기 사무국의 구성은 2기 운영진에게 맡기자고 설득하였다. 그들은 명문화 시키지는 않지만, 윤지선은 2기에서 활동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뜻을 전했다. 평화박물관은 2015년 12월 21일 은수미 의원에게 손잡고 통장 잔고 17,583,529원 전액(2015년 11월분까지)을 이체⁶⁾한 것으로 손잡고와 관련된 활동을 종료하였다. 2기 손잡고 보고서가 “활동가의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재정을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는 한홍구 전 위원의 아집과 독선의 벽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 후 2016년 4월 1일자로 공문 형식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손잡고 명의의 공문이 이메일로 평화박물관에 도착하였다. 공문의 연락처에 손잡고의 주소로는 이미 9개월 전 평화박물관이 이사한 옛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대성스카이렉스 501호를 쓰고 있고, 팩스 번호도 평화박물관의 번호 735-5810로 되어 있었다. 그 후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로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보고서 집필자이기도 한 박래군이 4월 9일 토요일 문자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손잡고 문제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한홍구 전 운영위원과 두 사람이 밤 아홉시 반에 평화박물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2기 손잡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며, 손잡고와 평화박물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평화박물관 CMS에 들어온 금액을 이관하고 CMS 회원들을 손잡고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윤지선 같이 문제를 일으킨 활동가가 손잡고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지만, 이를 재정이관의 전제로 삼지는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 첫째, 평화박물관이 부담한 윤지선의 급여 문제, 둘째, 손잡고가 사용한 평화박물관 사무실 비용문제, 셋째, 평화박물관 CMS상의 손잡고 사업 후원회원으로 잡혀 있는 분들의 이관 문제.

첫째, 평화박물관이 부담한 윤지선의 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에 활동가를 파견한 것이라면 평화박물관이 활동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윤지선이 처음부터 손잡고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2기 손잡고 운영진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평화박물관이 손잡고 활동가의 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가장 많이 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두 사람은 평화박물관이 윤지선의 활동비를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온 박래군과 안진걸 두 운영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평화박물관이 지급한 급여내용을 확인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기로 하였다.

둘째,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평화박물관과 손잡고가 불편한 상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손잡고에 사무공간과 인터넷 및 통신수단을 제공했던 것에 대해 실비로 월 3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하자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온 박래군과 안진걸 두 운영위원은 이 또한 당연하고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며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6) (별첨 #6)

셋째, CMS후원회원의 이관 문제는 손잡고와 평화박물관이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박물관이 CMS후원회원 개개인을 회원에서 해지하고, 이들이 각각 손잡고에 새로이 CMS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박래군, 안진걸, 한홍구 세 사람은 의견을 같이 했다. 2기 손잡고가 평화박물관과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평화박물관이 현재 평화박물관의 손잡고 사업에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던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손잡고에 전달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배제되었다. 평화박물관이 손잡고 사업 후원자들을 일괄 해지하고 이들이 새로이 손잡고에 개별 가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원의 탈락이 예상되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4월 9일의 모임은 초반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2기 운영위원회가 윤지선을 여전히 활동가로 쓰는 문제에 대해 항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 사람 간에 아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모임이 끝난 후 박래군과 안진걸은 “형님(두 사람은 한홍구 전 운영위원을 때로는 형으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지칭했다), 고맙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재정을 흔쾌히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잡고와 관련해서 다시는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손잡고와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는 오늘로 다 종결된 것이냐 확인 했고, 두 사람은 그렇다고 답하였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현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손잡고 관련 서류와 물품 일체를 박스에 담아 두 사람에게 교부했다.

이에 따라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2016년 4월 19일 박래군, 안진걸 두 사람에게 4월 9일 모임에서 합의된 정산내용을 평화박물관 명의의 공문으로 보냈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확인한 결과 윤지선의 급여는 2014년 7월부터 2014년 11월, 2015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7개월간 평화박물관 재정에서 지급되었다. 평화박물관이 부담한 4대 보험은 제하고 7개월간의 급여액 11,496,348원을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에 보내줄 2015년 12월 이후의 금액에서 공제하였다. 공간과 공과금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9개월 간 매월 30만원씩 570만원을 공제하였다. 윤지선의 급여와 공간사용료 등을 합치면 $11,496,348 + 5,700,000 = 17,196,348$ 원인데,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개월간의 CMS후원금 총 합은 14,170,780원이어서 차액 3,025,568원은 2016년 4월 후원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별첨 #7)는 정산서이고, (별첨 #8)는 정산서를 보내며 약간의 설명을 담은 이메일이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4월 9일 회동에서 박래군, 안진걸, 한홍구 3인이 합의한 내용을 문안으로 작성하여 평화박물관의 CMS 상에 손잡고 사업을 후원하는 분들께 보낼 공지 메일(문자로도 발송하기로 함) 초안을 아래와 같이 보냈다. 손잡고 측이 새로운 회원들을 가입시킬 계좌번호를 주면 메일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는데, 그 답신을 손잡고 측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회동 10일 후에야 정산서류를 보내게 된 것이다.

그동안 평화박물관을 통해 손잡고 활동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는 2015년 11월로 활동을 종료하였고, 평화박물관 역시 1기 사무국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평화박물관은 손잡고 관련 모든 재정과 업무를 새로 출범하는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에 이관하게 됨에 따라 2016년 6월 1일 이후 더

이상 손잡고 관련 CMS 업무를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평화박물관의 손잡고 회원은 자동탈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번거로우시겠지만 2기 손잡고가 새로 마련하는 CMS 시스템에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재가입 관련한 문의 사항은 2기 손잡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사무국 연락처(담당자: 연락처:0000000000000000)) 노동자들의 처지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손잡고 1기 사무국을 맡았던 평화박물관 드림

안진걸 사무처장은 4월 21일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보낸 정산서에 대한 답신을 보내왔다. 답신의 제목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징계나 처우 등에 대한 내규예시문 등 드려요.7) Re: 손잡고 정산 서류”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래군 이사님도 참조)

아래 선생님께서 필요하신부분 인사, 처우, 급여, 징계, 교육등 활동가님들과 관련된 내규 예시문 드려요. 다른단체 내부 규칙이니 저희들끼리만 공유하고, 새로 도입할때 참조하시면 될듯해요. 메일의 내용 중 인사, 징계, 처우, 교육 등 내규 예시문을 제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래군 이사님도 참조)

아래 선생님께서 필요하신부분 인사, 처우, 급여, 징계, 교육등 활동가님들과 관련된 내규 예시문 드려요. 다른단체 내부 규칙이니 저희들끼리만 공유하고, 새로 도입할때 참조하시면 될듯해요.

안내 메일은 손잡고 2기 분들이 사무국, 연락처, cms계좌가 확정되어야 보내는게 좋다고 하니,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발송 메일 초안에 안내를 약간더 추가할 것 같은데, 그런 의견까지 합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글고,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2기 손잡고 준비하시는 분들 몇분과 얘기를 해봤더니, 평박이 1기 사무국을 맡았고, 인큐베이팅도 고맙게 해주셨는데, 급여나 사무실 사용료 부분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원이나 기부가 가능한 것 아니겠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선생님과 뵈고 왔기 때문에 최종 정산 전에 이런 저런 의견도 있었다고 또 전달은 해드려야 할 것같아서요.. 선생님께서도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추가로 불편하게 해드릴까봐 걱정이 많이 되면서도 일단은 간략히 의견은 전달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손잡고 2기 재정도 만만치 않고,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이라서 그런 의견도 나온 것 같고, 다들 여전히 고민이 많은 부분도 있는것 같고요.

7) 4월 9일 회동에서는 10여일 전인 3월 28일 평화박물관 34차 이사회가 전 사무처장 석미화의 이상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박래군, 안진걸 두 사람이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고 문의하자 두 사람은 내부 징계절차를 확실하게 밟으라고 조언하였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평화박물관 정관에 특별히 징계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다른 시민단체의 경우는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두 사람은 징계절차가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고, 참여연대는 일부 규정을 갖고 있다며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참여연대의 징계규정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4월 19일자 이메일에서 “안처장님은 지난번 보내주시겠다고 정관 잊지 말고 보내주세요”라고 쓴 것이다.

부디 선생님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 선생님도 좀더 평안해주시고, 2기 손잡고도 잘 되면 좋겠네요. 또 평박 내부 문제도 잘 해결되길,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해서 내규 예시문 드리고요, 선생님님과 평박 발전 위해서 기도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선생님 평안하신 범위내에서 한번 더 뵈수도 있고요.(저희야 따로 뵈일도 많을 수 있으니까요^^)

또 연락드릴게요.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안진걸 드림

안진걸 손잡고 2기 운영위원의 메일 내용 중 급여나 사무실 사용료에 대한 전부 또는 부분적 지원이나 기부를 요청한 내용은 4월 9일 합의와 어긋나는 것이었다. 안진걸 2기 운영위원은 6월 11일 다시 아래와 같은 메일을 보내왔다. 메일의 후반부에는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의견 및 요청사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홍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일로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손잡고 2기 운영위의 의견과 요청사항까지 전달해드려야 하니 제 마음도 많이 무겁게 매우 편치가 않습니다... 저번에 한번 찾아뵈었다는 인연으로 제가 이메일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주시고요.

아래 내용 답았습니다. 물론, 불편하시거나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을 더 어려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제 마음이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손잡고 2기가 잘 출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 하에, 손잡고 2기 운영위원들의 중론을 모아서 작성됐다고 하니 그점 헤아려주셔서 박래군씨, 은수미 전 의원 등 손잡고 2기 운영위원-운영진 들에게 선생님의 뜻을 회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고로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 : 은수미, 조국, 박래군, 배춘환, 박병우, 윤지영, 좌세준 등등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도 2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임시로 결합해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위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또는 박래군씨랑 저 등이 선생님을 한번더 찾아뵈었으면 하고요. 많은 어려움과 늘 바쁘신 상황이지만, 그러시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회신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곧 한번 찾아뵈고 싶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잘계시고요. 안진걸 올림.

----- 전달된 메시지 -----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의견 및 요청사항입니다.

<손잡고> CMS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지난 4월 미팅 자리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마무리하여 <손잡고>도 평화박물관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1. CMS 통장에 찍혀있는 잔액의 전액을 2016. 6. 17(금)까지 [신한은행 100-030-200970, 예금주 : 손잡고]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잡고>와 관련한 CMS와 관련하여 2015년 12월 이후 손잡고 통장으로 이체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박물관이 <손잡고> CMS를 대행한 것은 평화박물관이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활동 초기의 <손잡고>를 지원한 것이고, 평화박물관의 당시 사정에서도 필요하여 채택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활동가의 활동비와 장소사용료 등을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란의 소지만 키울 뿐이며, 2기 <손잡고>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회비 전액 외에도

- ① 2015.02.12. 콜비츠 전시회 명목으로 평화박물관으로 이체된 300만원
- ② 손잡고 운영위원회가 전원 사퇴한 이후인 2015.12.10. 전인철(극단 돌파)에게 지출된 100만 원 등의 항목은 손잡고 운영과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바,
①과 ②를 합산한 400만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6. 6. 17(금)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손잡고> CMS 업무와 관련한 필수적인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 및 자료도 2016. 6. 17(금)까지 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손잡고 CMS 등록내역증빙 : 년도별 월별 가입건수 및 출금액수 기재 및 이에 대한 확인자료
- ② 회원명부 : 2016. 4. 4. 일자 이메일로 도착한 서류는 CMS 출납명부로 보고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CMS 회원의 가입년월별/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가 포함된 회원명부

위와 같은 내용이 신속히, 잘 이행되어서 서로간의 공개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 드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적인 활동가이고, 2기 손잡고에서 책임성을 갖고 일하겠다고 평화박물관과의 업무 이관을 마무리 짓겠다고 대표를 자임하고 온 두 사람과 평화박물관을 대표한 한홍구 이사가 맺은 합의가 너무도 무참히 무너진 것에 대해 평화박물관은 어이가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란의 소지만 키울 뿐이며, 2기 <손잡고>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협박성 언사를 한 것은 손잡고라는 한 단체를 인큐베이팅 했던 기관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평화박물관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공문을 보냈다.

평화박물관

: 2기 손잡고 사무국

: 평화박물관(1기 손잡고 사무국) 02-735-5812

제목: 손잡고 사무국 이관에 따른 정산처리

날짜: 2016년 6월 21일

1. 손잡고와 평화박물관 간의 정산은 이미 2016년 4월 2일 손잡고의 전권 대표로 온 박래군, 안진걸 두 운영위원과 평화박물관 한홍구 이사 사이에 원만히 최종적으로 합의되었습니다.

1. 그날 박래군, 안진걸 두 운영위원은 한홍구 이사가 평화박물관을 통해 손잡고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손잡고의 재정이 충분히 마련되기 이전에 평화박물관이 손잡고 활동가에게 지급한 급여와 공간 사용료를 제하고 CMS 계좌의 잔액을 손잡고에게 넘기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동의하였습니다.

1. 박래군, 안진걸 손잡고 운영위원과 한홍구 평화박물관 이사 사이에 합의서 작성 이후 손잡고 회원들의 평화박물관 CMS 해지까지 4월분과 5월분이 입금되었습니다.

4월 3,432,945원/ 5월 3,324,100원

여기에 지난 정산서에서 평화박물관이 지불할 금액 - 3,025,568을 계상하면 3,731,477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귀 회가 알려주신 신한은행 계좌로 6월 22일(수)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2월 12일 평화박물관으로 이체된 300만원은 2014년 2월 손잡고 발족 이후 평화박물관이 지출한 제경비를 300만원으로 추산(실제는 훨씬 많습니다.)하여 정산한 것입니다. 정산된 경비가 콜비즈 전시회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지 손잡고의 회비를 콜비즈 전시회 명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2015년 12월 10일 전인철(극단 돌파)에게 지출된 100만 원은 <노란봉투> 연극의 집필과정에서 사실상 무대가 되었던 안산 SJM 노조 방문 공연에 사용된 비용입니다. 전인철 씨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노란봉투>의 연출자였습니다. <연우무대>에서 <노란봉투> 공연이 절찬리에 이루어진 후 1기 운영위원회는 투쟁현장을 찾아가며 <노란봉투> 공연을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2015년 여름 유성기업을 찾아가 현장공연을 하였고(그때는 훨씬 큰 돈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12월 SJM 노조방문 공연 때는 배우들의 헌신으로 100만원으로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현재 평화박물관은 손잡고와 관련된 어떤 자료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박물관이 확인한 자료 일체는 4월 2일 박래군, 안진걸 두 분께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1. 손잡고 사업을 발의하고 1기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졌던 평화박물관은 2기 운영위원회도 독자적인 재정기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 문건을 보내면서 한홍구 전 운영위원이 2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평화박물관을 방문하여 정산내용을 합의한 안진걸과 박래군에게 여러 차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남겼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7월 10일 오전 0시 15분경 안진걸 2기 운영위원이 텔레그램에 여러 가지 활동소식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고 “텔레만 하지 말고 전화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졌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당신들이 대표로 와서 모든 것이 원만히 잘 처리되었다고 고맙다고 치하했을 뿐 아니라 손잡고 관련된 그 어떤 잡음이나 이의제기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가 놓고서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항의하였다. 안진걸 2기 운영위원은 자신들은 2기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갔을 뿐이라고 발뺌했다. 이에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합의내용을 수정할 사안이 있으면 안진걸, 박래군 두 사람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처리하자고 제안하였고 안진걸 운영위원은 박래군 운영위원에게 연락하여 조만간 만날 약속을 잡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던 중 7월 21일 한겨레 기자 방준호로부터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가 쓴 보고서를 보았느냐는 뜻밖의 질문을 받게 되었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 나도 좀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보고서를 받아 보았다. 어떻게 ‘진상 보고서’가 사건의 당사자인 본인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들어 보지 않고, 더군다나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이나 결정사항을 참고하지도 않고 나올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더구나 박래군 2기 운영위원이 보고서 작성자 명단의 앞머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 4월 9일 평화박물관 사무실에서 “형님, 고맙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었습니다”라고 좋아하던 박래군과 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박래군과 세월호 현장 등 여러 곳에서 동분서주하는 박래군이 과연 동일인물이란 말인가.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시민사회에 드리는 제안

2기 손잡고 보고서의 오류와 사실 왜곡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연 손잡고 업무를 담당하던 평화박물관 활동가에 대한 부당해고가 있었는지요. 평화박물관 소속이나 손잡고 소속이나 하는 문제를 떠나서도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사임일자를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결국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기간을 넘어 10월까지 일했습니다.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화박물관은 윤지선 활동가와와의 계약관계를 해지하였을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본인이 사의를 표한 것이 부당해고가 되고, 처음에는 평화박물관에 입사한 적도, 평화박물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근로계약서가 나오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화박물관과 2기 손잡고 간의 재정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2기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온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두 분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무책임하게 이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의 당사자로 문제를 잘 해결해줘 고맙다고 인사까지 한 사람이 한홍구 운영위원에 대한 인격살인이라 할 수 있는 손잡고 2기 보고서의 대표필자로 나섰습니다.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이름과는 달리 진상과 너무 거리가 먼 보고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조차 보지 않았고, 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한홍구 전 위원의 이야기는 한 마디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반박 보고서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사실에 근거하여 사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레임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있는 사실 자체를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겪으며 교수나 언론인과 같은 지식인, 법률가,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여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정의의 확립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손잡고 홈페이지의 발기인 명단에는 손잡고를 최초로 발의했고, 초기에 실무를 주도한 저 한홍구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참 치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민운동 진영이 어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할 뿐입니다.

이 반박문을 마치며 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시민사회의 신망 있는 인사 3~5인 정도를 모셔 쟁점 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1.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 회의기록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당사자의 입장도 확인하지 않은 문건이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작성되고 배포되고 보도된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1. 사실 확인 결과 2기 <손잡고>의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있을 경우 2기 <손잡고>는 보고서를 철회하고 평화박물관과 본인 한홍구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1. 사실 확인 결과 2기 <손잡고>의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있을 경우 2기 <손잡고> 보고서 집필진은 <손잡고> 운영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1.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는 <손잡고> 홈페이지의 발기인 명단에서 한홍구의 이름이 삭제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한홍구의 이름을 복원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한홍구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1. 이상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상응하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6년 8월 20일

전 <손잡고> 운영위원 한홍구

손잡고 2기 보고서에 대한 반박문 (2016년 8월 20일) 요약본

한 홍 구(전 <손잡고> 운영위원)

<손잡고>는 2014년 2월 한국 사회의 지식인과 시민운동가 550 여 명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모인 단체이다. 본인은 <손잡고>의 조직을 최초로 맡았고, 1기 운영위원으로서 1년 반 동안 실무를 책임져 왔다. 2016년 7월 20일,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는 “<손잡고> 활동가 부당해고 관련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배포하여 본인이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를 부당해고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한겨레>는 이를 받아 “한홍구 교수가 노동권침해”라는 제목으로 7월 22일자 10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본인은 이 보고서의 사실왜곡과 오류에 대하여 자세한 반박문을 작성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다 보니 보고서의 분량이 너무 길어져 부득이 이 요약본을 작성하게 되었다.

<손잡고> 측 보고서에서 본인을 비난하는 주요 논점은 아래와 같다.

1. <손잡고> 활동가를 부당해고 했다
2. 사무국 운영 과정에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았다
3. 2기 <손잡고>와의 관계에서 재정을 제대로 이관하지 않았다

첫째, 손잡고 활동가를 한홍구가 부당해고 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문제의 활동가는 2014년 6월 평화박물관 활동가로 채용되어 평화박물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화박물관 사무처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와 업무지시를 받고, 평화박물관의 급여체계에서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을 보장 받으며, 평화박물관의 <손잡고> 사업 담당활동가로 <손잡고>에 파견(손잡고 사무공간은 평화박물관 안에 있었음)되어 일했다. 문제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화박물관 활동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손잡고>에 채용된 활동가라고 주장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손잡고>는 2015년 7월 부당해고 주장이 처음 제기될 때까지 문제의 활동가를 채용한 적이 없다.

2015년 7월 15일 열린 긴급운영위원회는 문제의 활동가가 손잡고 소속이 아니라 평화박물관이 채용하여 손잡고에 파견한 평화박물관 소속 활동가임이 명백하다고 확인했다. 윤지선이 끝내 평화박물관으로 채용되었던 사실을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계속되자 9월 1일 열린 <손잡고> 18차 운영위원회는 “윤지선 활동가에 대한 평화박물관 파견 고용계약은 9월로 종료”해줄 것을 평화박물관에 요청하였다. 이에 평화박물관은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지선과의 고용계약을 해지했을 뿐이다.

‘부당해고’ 논란의 발단은 문제의 활동가는 평화박물관 사무처장과의 갈등 속에서 7월 7일 사직하겠다는 뜻을 사무처장에게 전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사직하겠다는 뜻을 표시해 놓고, 한홍구가 사직을 만류하지 않고 받아들이자, 마치 한홍구가 자신을 부당해고한 것처럼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사실은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둘째, 본인이 사무국 운영에서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손잡고를 평화박물관의 하부조직으로 인식했고, <손잡고>라는 단체의 회원 확보를 통한 물적 토대의 구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이 <손잡고>라는 단체의 결성을 처음 제안하고, 그 사업구상을 하고, 500여 명의 발기인 중 350여 명을 본인이 모집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손잡고> 측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손잡고> 운영위원회는 평화박물관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본인에게 사무국 운영을 일임하였다. 본인이 사무국 운영의 책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평화박물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화박물관은 <손잡고>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채택하고 물심양면으로 사업을 지원하였다. 본인은 새로이 출범한 <손잡고>가 독립된 단체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회원확보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2014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손잡고는 일시납 1,100여만원, 월납 CMS 회비 460여만원 (중도해지자 제외하면 2015년 7월 현재 약 350여만원)을 모았는데, 이의 90퍼센트 이상은 본인의 강연과 기고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손잡고 측 보고서에서 손잡고의 재정이 “평박의 재정과 혼재하여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관리를 어렵도록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손잡고>는 평화박물관의 CMS 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시스템 상 사업별로 후원금액이 분리되어 있고, 평화박물관은 그때 그때 해당 금액을 사업별로 배분했기 때문에 “평박의 재정과 혼재하여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관리를 어렵도록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의 활동가는 손잡고의 재정 계획과 지출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면서 평화박물관 사무처장이 재정지출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조직에는 위계가 있는 법이고 재정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논의 사항을 한홍구 이사-사무처장-담당 활동가로 이어지는 계선 구조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담당 활동가가 이런 정상적인 재정의 집행구조를 불편해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반조직적 태도였다.

셋째, “사무국 운영 및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한홍구 전 위원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창립 이후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던 <손잡고>는 2015년 7월 담당활동가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화박물관은 더 이상 <손잡고> 사무국 운영을 책임지지 않기로 했고, 2기 운영진에서 빠지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화박물관은 2015년 12월 21일 은수미 의원에게 손잡고 통장 잔고 17,583,529원 전액(2015년 11월분까지)을 이체했다. 2기 손잡고 보고서가 “활동가의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재정을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는 한홍구 전 위원의 아집과 독선의 벽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 후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의 박래군, 안진걸 두 분이 4월 9일 평화박물관을 방문하여 2015년 12월 이후 <손잡고> CMS 계좌로 입금된 돈을 넘겨주고, CMS 회원을 <손잡고>로 이관해줄 것을 요구했다. 본인은 문제를 일으킨 활동가가 손잡고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지만, 이를 재정이관의 전제로 삼지는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다. 1) 평화박물관이 부담한 <손잡고> 활동가의 급여 문제, 2) 손잡고가 사용한 평화박물관 사무실 비용문제, 3) 평화박물관 CMS상의 손잡고 사업 후원회원으로 잡혀 있는 분들의 이관 문제.

평화박물관이 부담한 <손잡고> 활동가의 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문제의 활동가가 평화박물관이 <손잡고>에 파견한 활동가라면 평화박물관이 활동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그가 처음부터 <손잡고>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2기 손잡고 운영진에서도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평화박물관이 손잡고 활동가의 활동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두 사람에게 물었고, 두 사람도 이 금액의 공제에 동의하였다. 다음으로 본인은 평화박물관과 손잡고가 불편한 상태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에 그동안 손잡고에 사무공간과 인터넷 및 통신수단을 제공했던 것에 대해 실비로 월 3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하자 두 사람은 이 또한 당연하고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며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CMS후원회원의 이관 문제는 손잡고와 평화박물관이 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평화박물관이 CMS후원회원 개개인을 회원에서 해지하고, 이들이 각각 손잡고에 새로이 CMS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세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여 그렇게 처리하기로 하였다.

모임이 끝난 후 박래군과 안진걸은 “형님(두 사람은 한홍구 전 운영위원을 때로는 형으로 때로는 선생님이로 지칭했다), 고맙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재정을 흔쾌히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손잡고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손잡고와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는 오늘로 다 종결된 것이나 확인 했고, 두 사람은 그렇다고 답하였다. 한홍구 전 운영위원은 현재 사무실에 남아 있는 손잡고 관련 서류와 물품 일체를 박스에 담아 두 사람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손잡고> 측은 4월 9일의 원만한 합의를 뒤집고 평화박물관에 문제의 활동가의 급여와 19개월간의 공간사용료를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하더니, 이 돈을 안 내놓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보냈다. 본인은 안진걸, 박래군 두 사람에게 연락하여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다시 이야기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만남 대신 보고서를 통한 명예살인을 당하였다. 이 보고서는 당사자인 본인에게 한 마디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쓰여졌고, 심지어는 1기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더구나 평화박물관을 방문하여 본인과 재정이관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다 잘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한 박래군이 보고서의 집필자로 등장한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본인이 시민사회의 신망 있는 인사 3~5인 정도를 모셔 쟁점 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과 보고서의 오류가 밝혀질 경우 <손잡고>는 마땅히 보고서를 철회하고 평화박물관과 본인 한홍구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보고서 집필진은 <손잡고> 운영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본인은 위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현재 <손잡고> 홈페이지에는 <손잡고>를 처음 구상하고 대부분의 발기인을 모집한 본인의 이름이 삭제되어 있다. 다 같이 이성을 회복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

2016년 8월 20일

전 <손잡고> 운영위원 한홍구

* 2기 <손잡고> 측 보고서 반박문 별첨 자료

- 별첨 #1: “박근혜 시대, '정수장학회 저격수' 한홍구를 만나다
-한홍구 정수장학회 공대위 집행위원장, <미디어오늘> 2013년 1월 10일)
- 별첨 #2-1: “노조에 손배 폭탄 안돼” - 사회적 기구 띄운다, <한겨레> 2014년 1월20일
- 별첨 #2-2: “(사설)파업 손배소 제한하는 법 개정 서둘러야”, <한겨레> 2014년 1월20일
- 별첨 #2-3: “파업 손배 청구는 ‘노동자 탄압’ 공론화 필요” -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위한 손잡고’ 만드는 한홍구 교수, <경향신문> 2014년 1월 23일
- 별첨 #3-1: 하종강 입장문: 2014년 3월 2일
- 별첨 #3-2: 한홍구 편지: 2014년 2월 25일
- 별첨 #4: 윤지선 근로계약서
- 별첨 #5: 계약종료 예고 통지서(2015년 9월 11일)
- 별첨 #6: 손잡고 2기 운영제안서 (2015년 10월 20일)
- 별첨 #7: 은수미 의원에게 보낸 계좌이체 내역
- 별첨 #8: 손잡고 사무국 이관에 따른 정산처리 (2016년 4월)
- 별첨 #9: 손잡고 정산 관련 서류를 보내며 박래군, 안진걸 두 분께 보낸 메일
(2016년 4월 19일)

***** 별첨 #1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30>

미디어스

박근혜 시대, '정수장학회 저격수' 한홍구를 만나다[
신년 인터뷰]한홍구 정수장학회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도연 기자 | 승인 2013.01.10 07:40

역사학이 발 빠른 학문은 아니지만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으로서는 한 교수는 박 당선인의 정수장학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고 MBC와 부산일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술한 대중 강연을 다녔다.

'2012년에 가장 뜨거웠던 인물'로 한홍구 교수를 꼽은 <미디어스>는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 그의 연구실을 찾았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자신의 서재를 둘러보고 있다 ©미디어스

멘봉의 시대 속에서 힐링이 난무하고 있다. 48%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신음소리는 SNS를 통해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정수장학회 저격수' 한홍구 교수는 48%가 그랬던 것처럼 '멘

붕'을 겪지 않았을까? 그는 "(선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지만 9월부터 이대로 가면 질 것이라는 예감을 했기 때문에 큰 멘붕을 겪지 않았다"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교수가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당선인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에 맞불 기자회견으로 대응하며 '정수장학회 끝장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역사왜곡'에 침묵하고 있는 타 지식인과 다르게 한 교수의 꾸준한 사회참여는 권력의 사냥개가 된 언론에 자각을 촉구한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올해의 송건호 언론상'을 받기도 했다. 심사위원들은 "사회 전방위에 걸쳐 여러 현안의 역사적 연원을 파헤치고 사회문제와 병리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그의 노력에도 민주·진보 진영은 참패했다. 한 교수는 이번 대선의 패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 그는 '친노'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인터뷰 내내 차분했던 그는 친노와 노동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격앙된 목소리로 크게 꾸짖었다.

"친노'가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늘 떠든 거지만 김주익의 변호사는 노무현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주익은 목을 매달았고 노무현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친노가 이 지점을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한다...(중략)...자칭 진보라는 민주당과 지식인, 언론이 손을 놓고 있었으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는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이 불거진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방치한 언론과 지식인의 태만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라며 진보 언론과 지식인,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저격수의 명성답게 한 교수는 "이번 박근혜 인수위 인선은 불통과 오만" "윤창중은 함량 미달" "통제에 대해 (침묵하는) 기자들은 권력의 YES맨이 될 것" "김재철과 짝꿍했던 이들의 만행을 기록한 흑서가 필요하다"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기자가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 묻자, 그는 땀을 흘리며 "대한민국이 겪었던 20세기 백 년 중 단 3년만이 민주정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한계일 수도 있다"며 미래에 대한 비판보다 현재에 대한 우려를 더 내비쳤다. 그의 지적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올 미래는 역사의 정체일까? 한 교수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양극화가 더 고착되고 80년 광주 도청에서 총 들고 지킨 이들의 죽음은 개죽음이 될 것"이라며 "스스로 역사의 주인으로 참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 일답 전문.

"민주당과 친노의 반성, 찾아볼 수 없어...노동문제 성찰 없다면 민주화 불가능"

미디어스(아래 미): 대선 이후 혹시 '멘붕'을 겪었나?

한홍구 (아래 한) :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대로 가면 진다는 예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후 '멘붕'까지는 아니었다. 물론 당일에는 투표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하면 진다'는 인식을 9월부터 계속 갖고 있었다.

미 : 한 교수가 보기에 이번 대선의 패인은 무엇이었나?

한 : 민주당이 하나로 움직였다고 생각지 않는다. 또, 지식인들도 생각 외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SNS에서 소시민들이 죽어라 하고 열심히 싸웠다.

미 : 과거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지했던 50대가 변했다는 평가가 있다.

한 : 일단 민주정권 10년 동안에 상처 받았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민주정권이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일 수도 있고 수구 언론이 덮어씌운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아왔다. 그 50대의 상당수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탄생할 때 지지표를 던졌던 분들이었다는 데서 민주당이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 이후 반성도 없었고 대책도 없었다. 참 절망스럽다.



▲ (부산=뉴스1) 전해원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가 계사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이번 참배행사에서는 노건호씨와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 참여정부 인사,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을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모였다. 2013.1.1/뉴스1

미 : 민주·진보 진영의 패배 후유증이 크다.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 솔직하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실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국회의원 출마도 못할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죽음에 가지는 의미와 친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반성을 할 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충분했다. 4·11총선이 그렇게 됐는데 그걸 이겼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멘붕이 심하지 않았다.(웃음)

미 :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한 : '친노'가 노동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의 민주화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지난 몇년 동안 늘 떠든 거지만 김주익의 변호사는 노무현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김주익은 목을 매달았고 노무현도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친노가 이 지점을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반성을 하지 않는다. 민주정권 10년을 겪은 이들,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 경제 민주화라는 건 결국 삼성개혁과 노동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빼놓고 경제민주화하자는데 먹히겠나? '차라리 박근혜가 시혜적으로 해주는 게 나아' 그런 생각으로 50대가 투표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박근혜가 더 잘할 것 같다.(웃음) 민주·진보 진영이 허물어진 건 민주와 노동이 따로 갔기 때문이다. 밑바닥부터 노동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성찰이 없다면 5년 후에 또 진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선..."대변인에 윤창중, 언론인들 치욕스럽지 않나?"

미 :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인선을 보면 주요 요직에 극우적 인사들이 포진됐다.

한 : 박정희가 18년을 집권했다. 사람들은 박정희를 보고 '용인술의 천재'라는 말을 한다. 한 번 믿은 사람은 확실하게 밀어주고 상황을 봐서 그 자리를 바꿔서 충성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하지만 용인술 천재의 말로는 어땠는가? 10·26이 왼팔과 오른팔이 싸워 가지고 발생한 사건이다. 말년의 박정희는 정말 눈이 어두웠고 불통과 독선만 가득했다. 박근혜가 보고 배운 박정희는 그 마지막 시기, 즉 가장 나쁜 시기의 박정희다. 이번 인사도 그의 불통과 오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함께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13.1.1/뉴스1
미 : 대표적인 인물이 윤창중과 이동흡이다.

한 : 역시 박정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는 중정부에서 사람을 두들겨 패던 사람을 정면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옛날 중정부에서는 사람을 잡아다 두들겨 뺐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조지는데 흔하게 쓰이는 수단이 바로 '말과 글'이다. 윤창중은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논리로, 가장 친박하게 사람을 조진다. 말을 세게 하더라도 내용과 품격이 있어야지. 그런 면에서 윤창중은 함량 미달이다. 이동흡 역시 법조 내부 평가가 매우 나쁜 인물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는 등 재판관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명백하다. 짧은 5년 동안 권력 누수 없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 처음부터 강경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의 의지가 담겨 있다.

미 : 박 당선인은 기자들과의 스킨십을 멀리하고 있다. 인수위 기자실도 제한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한 : 박근혜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는 태생이 공주고 여왕이다. 그러다보니 대화와 토론은 찾아볼 수 없고 명령과 복종하는 관계만 있다. 애초에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통제를 할 경우, 기자들은 권력에 대해 에스맨의 역

할만 할 것이다. 정권을 잡기 이전부터 환관이니 내시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언론인이라고 갖다 쓴 게 윤창중이다. 난 외려 언론인들에게 묻고 싶다. 윤창중 같은 사람을 대변인으로 뽑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내가 언론인이었다면 치욕스러웠을 것이다.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 우리 공대위는 끝까지 갈 것"

미 : 그간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을 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나?

한 : 성과라고 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 총체적으로 볼 때, 정수장학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슈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사실을 모르거나 과거의 일로만 치부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문제의 본질은 MBC와 경향신문이다. 최필립과 이진숙의 대화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미를 모르는데, 이는 MBC를 민영화하겠다는 말 아닌가? MBC가 민영화 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 MBC지분의 30%를 갖는 게 된다.

미 : 정수장학회 공대위 활동은 현재 어떠한가?

한 : 대선 끝나고 정식으로 모이진 못했다. 하지만 계속 갈 것이다.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문재인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장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는 그 싸움이 조금 더 어려워진 것일 뿐이다. 대통령이 누가되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장물은 장물이고 너물은 너물이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는 걸 명시하고 싶다.

미 : 박근혜 임기 내에 MBC민영화가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한 : 박근혜가 자기 임기동안 MBC 민영화를 밀어붙이진 못할 것이다. MBC와 관련해서 본인과의 상관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김재철 사장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꾀수를 부리는 이유는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떼처럼 이익을 위해 모여 있는 관국이다. 언론운동을 하는 쪽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방송을 망가트린 자들의 만행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흑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훗날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 김재철과 함께 짹짹하며 MBC를 말아먹은 자들을 방송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미디어스>가 정말 언론을 다룬다면 팩트에 근거해서 흑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정리가 되려면 MBC 구성원들이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미 : 약속을 깨고 정수장학회 이사들이 연임됐다.

한 : 당연한 결과다. 형식적으로만 공익법인이다. 우리나라의 재벌이 만든 재단들의 운영을 보면 뻔하지 않나? 박근혜가 정수장학회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사장을 할 수 있었다. 아직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데 정수장학회와 박근혜가 무관하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미 : 부산일보의 편집장이 해고됐고 다시 편집장을 뽑았는데 부침이 심하다. 언론노조와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 잘 안 됐다. 내가 부산에 몇 번 내려가서 강연을 했는데, 부산 자체도 싸움이 길어지면서 동력이 쇠진됐다. 또, 민주당의 전략 부재로 부산일보·정수장학회 등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를 시키지 못했다. 민주당은 과거사도 민생도 손을 댄었다. 내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지만 민주당 강연에서는 늘 '정수장학회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결정타가 아니다. 승패는 민생에서 갈린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도저도 아니었다. 적어도 박근혜가 나서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정치권이 치고 나가면서 이슈화시켰어야 했다.

미 : MBC는 '한홍구-서해성의 직설'의 문구를 리트윗한 정동영 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 정동영 의원에게 미안하다. 우리 이야기를 좋은 뜻을 가지고 퍼 날랐는데 MBC와 우익

언론에 의해서 공격당했다. 기자라면 적어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들여다보고 뉴스가치가 없다면 기사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뻔뻔하게 우리 이름까지 싹 지우고 공중과에 띄웠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랬다나? 정동영을 죽이려고 한 것이다. 물론, 정동영이 전주에서 너무 빨리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등 행보에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지난 2-3년 동안 현장을 그보다 더 많이 찾은 의원이 어딴는가? 그 정도 급의 정치인이 사고방식과 입장을 180도 바꿨다. 더 놀랐던 건 민주당 내에 정동영을 공격하던 이들이 너무 많았다. 현장을 가보지 않은 자들이.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웃음을 짓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미디어스
"진보 언론, 무기력만 남아"..."손배·가압류, 지식인과 진보 언론의 지적태만"

미 : 대선 토론회에서 이정희 후보가 '다카키 마사오'를 언급했다. 공중과 TV에서 다카키 마사오가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발언이 있고 나서 언론이 본연의 책무를 방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 2007년도와 비교해보라. 이명박과 박근혜 경선 당시,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최태민과 전두환의 6억원 등의 비리가 흘러나왔고 메인 뉴스에도 나왔다. 허나 이번 대선에서는 한겨레, 경향, 미디어스,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등 진보 언론들이 참으로 무기력했다. 그런 걸 가지고 파헤치지 않았다. 그런 팩트들을 진지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현재 나는 일주일에 한 편씩 꾸준히 역사 관련 글을 생산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근현대사에 대한 이야기와 담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 : 언론뿐 아니라 참여형 지식인들의 움직임도 둔화됐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다.

한 : 우리사회에서 지식인의 지적태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꼽자면 바로 손해배상·가압류이다. 지식인들이 밥값을 못한 것이다.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이건 한국에만 있는 현상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하위 법률이 받쳐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모든 과업에 손배·가압류를 하는데 노동 3권이 뭘 의미

가 있나? 자본가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과업에 힘이 실리는 거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방화를 한다든지, 회사의 재산을 고의로 불태웠다든지 명백한 폭력성과 불법성이 있으면 손배·가압류를 물려야겠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조업 손실에 대해 감히 어떻게 손배·가압류를 물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인과 언론이 외국에서 사례도 찾고 법령도 개발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었어야 했다. 전경련도 총 자본의 입장에서 손배·가압류는 하면 안 된다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지난주 <한겨레>에서 동일방직에 대해서 썼다. 가만 생각해보니 동일방직에서는 자살한 이들이 없었다.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똥물을 뒤집어쓰며 폭력을 당했음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들이 서로를 믿고 단결했던 것도 있겠지만 나는 '손배·가압류'를 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칭 진보라는 민주당과 지식인, 언론이 손을 놓고 있었으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민생을 도외시한 채, 그들만 '민주화'가 된 것이다. 이런 식이면 지식인들은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진보는 되풀이되는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미 : 지난 <미디어스> 인터뷰 도중 '역사학자라서 행동이 느리긴 하지만 낙관적이다, 넓게 보면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고 말씀하셨다. 51%가 아닌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 : 우리 역사를 보라. 20세기 중에서 앞의 10년은 대한제국이었고, 나머지 90년 동안은 제국주의 일본과 군사독재를 겪었다. 한 세기 중 단 3년만 민주 정권이였다.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기까지가 한계일 수도 있다. 7-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이 동력을 잃어버렸다. 진보정당도 매우 암울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박근혜 집권 이후 더욱 양극화가 고착돼 아이들이 장래희망에 '정규직'을 쓰게 되는...이게 현실이라면 80년 광주 도청에서 총 들고 지킨 이들의 죽음은 개죽음이다. 역사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일 수밖에 없다는 걸 끊임없이 상기하며 스스로 역사의 주인으로 참여해야만 한다.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us.co.kr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

2014년 01월 20일 월요일 001면 종합

“노조에 손배 폭탄 안돼” 사회적 기구 띄운다

지식인·시민단체 등 머리맞대 ‘손배가압류 없는...’ 24일 출범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인 노조를 상대로 제기 되는 회사와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 폭탄’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논의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한다. >관련기사 8면

19일 노동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오는 24일 지식인과 시민단체 및 노동계 인사들이 참여 하는 가정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모임 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평화박물관에서 열린 다. 이번 모임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조 국 서울대 교수, 신승철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 위원장,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서 해성 소설가,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등이 참가한다.

모임의 대표 제안자인 한홍구 교수는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법원이 쌍용 차 조합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 권을 침해당하는 현실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반성을 하게 됐다. 지식인과 시민이 손을 잡고 단결된 노동계와의 고리를 복원해 함께 싸워 나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손잡고’는 노조 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가압류 및 업무방해죄 관련 법제도 개선책을 모색하면서 단기적으 로는 공동투쟁과 대응 방안 마련, 피해 노동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한겨레

2014년 01월 20일 월요일 035면 오피니언

파업 손배소 제한하는 법 개정 서둘러야

노조의 파업 뒤 회사가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의 부당성을 논의하는 시민사회기구가 생겨난다고 한 다. 이 기구를 제안한 한홍구 교수는 “법원이 쌍용차 조 합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보 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현실 에 대해 지식인으로서 반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 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나, 본격적으로 파업에 대한 보복과 위협 수단으로 악용된 시점은 1997년 아 이엠에프 사태 이후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총액만 지난해 말 1135억원에 이 르는 등 급증 추세에 있다.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합법적인 판결로 인정되 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노조법은 쟁의행위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 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 로만 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도 주체, 목적, 절차, 수단이라는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법적인 파 업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내하청 노조 가 쟁의에 나서면 주체에서 문제가 되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면 목적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하고, 분쟁이 격 려해져 공장 점거가 발생하면 수단이 불법이 되고 만 다. 노조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파업을 이끌어가더라 도 불법의 경계선을 넘기가 너무 쉬운 것이다.

노사가 갈등을 일으킬 때 노동자들은 파업을 할 권 리가 있고,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설 권리가 있다. 서로 가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며 싸우고 협상할 수 있을 때 힘의 균형과 조화가 이뤄진다. 그런데 애초 운동장 자 체가 기울어지다 보면 회사 쪽은 파업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 나지 않고, 노조는 더 과격한 수단에 끌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뿐이다.

현재 영국은 조합원 수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가액 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는 통상적인 파업권 의 행사가 아닌 폭행·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만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져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회에도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심상정 의원이 낸 개정안의 경우 영업손실 등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 배상을 제한하고 폭력 등 으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책임을 묻자는 취지 다. 국회가 제 일을 하지 않으니 시민사회가 먼저 나서 고 있는 것이다. 늦었지만 2월 국회에서라도 성실하게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

2014년 01월 23일 목요일 008면 종합

“파업 손배 청구는 ‘노동자 탄압’ 공론화 필요”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 위한 손잡고’ 만드는 한홍구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등에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소식을 듣고 “도대체 얼마나 더 축오란 건가” 싶은 생각에 가슴을 쳤다. 그는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자들이 술하게 죽어 가는 데 지식인들이 무얼 해왔나.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서기로 했다. 한 교수의 제안에 허종강 성공회대 교수, 조국 서울대 교수, 서해성 작가, 신승철 민주노동 위원장 등이 힘을 보탤 거 칭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을 위한 손잡고’ (손잡고)의 준비모임을 2월 1일 가집 예정이다.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란 뜻이 담겼다. 민주당 은수미·이종걸 의원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이 합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진중권 등 양대 교수도 트위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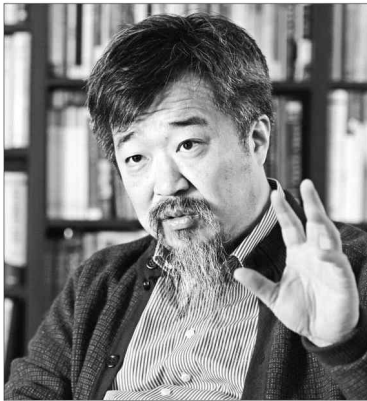
손잡고는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모금운동 등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손배 청구가 ‘야만적

법원도 자본가 편드는 판결 민영화된 ‘사법 살인’ 일 뿐

내일 각계 참여한 준비모임 법·사회 인식 개선 나설 것

인’ 노동자 탄압 수단임을 각인시키는 사회적 공론화가 주된 목적이다. 한 교수는 “해외에서는 파업 후 손배 청구가 야만적이고 처사한 수단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요구사항을 내놓고 회사 측에 손해를 끼치니까 힘이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손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손배 청구는 파렴치하고 ‘필패’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법원의 손배 판결을 ‘사법 살인’으로 규정했다. 그는 “박정희 경권 때는 교수대에 매달아 죽었다면 지금의 손배 판결은 집행을 민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똑같은 파도가 쳐도 해변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목까지 물에 잠긴 사람은 목숨을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22일 서울 종로구 평화박물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파업 후 노조를 쫓아내는 손해배상·가압류를 공론화할 사회적 기구가 절실했다”고 말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잃을 수 있다. 몇 십억원 내라는 건 쓰나미이고 죽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의 여신이 눈가 리개를 살짝 내려서 자본가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

판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손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노동과 시민의 자리를 좁히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 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후퇴의 주된 이유는 노동과 시민의 분리 때문”이라며 “시민 운동에서 노동자가 배제됐고 노동자들도 노동운동 내에서만 절박한 현안을 갖고 싸우다보니 소수화됐다. 시민운동 태두리 내에 노동자가 들어오고 주권자로서 계급의식을 갖는 것이 지역감정을 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진보 진영에서 먼저 논의구를 만들지만 그가 가장 절실히 호소하고 싶은 대상은 보수 진영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함께 노동자 손배 문제에 대해 보수가 침묵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가고 사법부의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안녕들 하신지 묻고 싶다. 호투라기를 붙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노동 3권이 왜 만들어졌는지 곰씹어봐야 한다. 자본주의가 시스템으로 굴러가려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한정으로 짓밟혀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웅 기자 hero@kyunghyang.com

안녕하세요? 하종강입니다.

‘손잡고’와 관련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한홍구 교수 거취, 책임 주체, 단체의 성격 등)에 대해 두서없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진행 경과

2013년 12월, 한홍구 교수가 저에게 손배·가압류 문제를 논의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비교적 큰 규모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이 상의해 실무를 이선옥 작가에게 부탁하기로 했고, 이선옥 작가는 흔쾌히 맡았습니다.

그 무렵, <시사인>에 4만7천원을 보낸 독자가 있었고, 그 일과 관련해 시사인 기자, 쌍차 노동자, ‘아름다운 재단’ 담당자를 만나고 온 이선옥 작가가 한홍구 교수와 저에게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손배·가압류 문제를 다루는 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동권이 아니라 시민사회·학계가 중심이 되고, 새 노동 운동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일은 피한다”는 원칙 정도만 합의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이후 준비 모임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때까지 ‘손잡고’에 모인 사람은 한홍구, 하종강, 이선옥 세 명이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에게 제안을 해, 네 사람이 초동 제안자로 참여해 일을 진행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져 박점규, 이창근, 석미화가 실무자에 추가됐고, 그 결정은 한홍구, 하종강, 이선옥 세 사람이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손잡고>’라는 이름은 이 무렵 이선옥 작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단체 이름을 듣고 한홍구 교수는 “하종강 선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름”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사실 이선옥 작가는 단순히 실무자라기보다 이 사업의 초동 제안자에 해당하고 실제 사업에서 담당하는 영향력은 나머지 제안자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컸습니다.

준비모임이 열리기도 전에 ‘손잡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습니다. 권영국 변호사가 미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제안자로 나온 것을 먼저 보게 된 것은 그때 문입니다. 준비 모임에서 제가 “일의 앞뒤가 바뀌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중심으로 ‘노란 봉투’ 모금이 시작됐고, 이선옥 작가가 그 모금의 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칙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쌍차만이 아닌 손배·가압류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둘째, 손해배

상액을 대신 갚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셋째, ‘손잡고’는 손배·가압류와 관련한 제도 개선 운동을, ‘아름다운 재단’은 노동자 지원 모금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 및 협력 관계를 갖자는 것 등이었습니다.

2014. 1. 24. 평화박물관에서 첫 번째 준비모임이 열렸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아직 체계가 구성되기 전에 우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실무단과 각 조직의 대표나 실제 일할 사람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초동 제안자들 중 하종강, 실무단 4인,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참여연대, 의원실 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단체나 개인들도 필요할 때 연락을 하면 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동의했습니다.

2. 한홍구 교수 거취 관련

‘손잡고’ 준비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뒤, 평화박물관 활동가들이 부당해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종강과 이선옥이 한홍구를 만나 그와 관련된 물의 때문에 ‘손잡고’에서 손을 떼겠다고 하자, 한홍구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는 일선에서 물러나 보이지 않게 돕는 일만 할 테니, 두 사람은 계속 일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어렵사리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한홍구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은 채, 제안자들을 모으고 재정과 실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손잡고’ 출범을 도왔습니다. 이때까지 ‘손잡고’와 관련해 실제로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은 한홍구, 하종강, 이선옥, 석미화 뿐이었고, 그 상황은 2014. 2. 26. 출범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무렵 ‘이효리 효과’ 등으로 사업이 급속히 확대돼,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가 한홍구, 하종강, 조국, 은수미, 권영국, 이선옥이 모이는 회의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권영국 변호사가 한홍구 교수의 거취 문제를 비교적 심각하게 제기했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제안자 명단에 한홍구 교수 이름을 넣느냐 마느냐, 한홍구 교수가 출범식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과제로 떨어졌습니다.

출범식 이틀 전인 2월 24일, 하종강, 한홍구, 권영국이 급히 회동했습니다. 하종강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제안자 명단에서 한홍구 이름을 삭제하고 출범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결정해서 실무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전해들은 말로는, 권영국 변호사 입장은 “손을 떼고 물러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었고, 한홍구 교수는 “나는 이미 물러나 있고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서 손을 더 떼라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이 파악한 바, 권영국 변호사 입장도 제안자 이름에서 한홍구 교수 이름을 반드시 삭제해야 하고, 출범식에도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꼭 아니라고 해서, 출범식은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제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개인적으로 제안자 명단에서 한홍구 이름을 삭제하고 출범

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잡고’에 모인 500여 명의 제안자들 중에 300여 명 정도를 한홍구 교수가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출범식 전까지 ‘손잡고’ 운영을 위해 모인 재정은 한홍구 교수의 500만원과 하종강의 10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실제 활동가 활동비를 어떻게 지급할지, 출범식 준비를 위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홍구 교수 혼자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의 전반을 거의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홍구 교수를 내치는 것보다는 당분간이라도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 부담을 떠안고 가는 것이 최선이고 도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 책임 주체

조국 교수나 권영국 변호사의 의견도 그랬던 것처럼, 사업 규모가 급속히 확대돼 책임 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출범식을 무사히 치르기 위한 임시 실무조직에 가깝고 구성원들도 무원칙하게 혼재돼 있어 ‘손잡고’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의 구성원으로 한홍구, 하종강, 조국, 은수미, 권영국, 이선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옥 작가가 조찬모임 연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가 한홍구 교수는 제외하고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에 대한 의견이 아직 없어서 실무진은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한홍구 교수의 거취에 관한 문제는, 개인이 결단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지 마시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초동 제안자들이 한번쯤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주체(그 명칭이 ‘공동 대표’가 될지 ‘이사’가 될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를 한홍구, 하종강, 조국, 은수미, 권영국으로 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하종강, 권영국 두 사람이나 돼, 애초에 계획한 대로 “기존의 운동권이 아니라 시민사회·학계가 중심이 되고, 새 노동운동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일은 피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초동 제안자는 아니지만 시민사회 진영에서 진보적 법조인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노동계를 대표하기에도 저보다 더욱 적절하고,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욕도 있다는 뜻이어서, 책임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사업의 진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조찬모임 이후 하종강은 책임 주체에서 빠지려고 했던 것이 출범식을 준비하면서부터의 제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결정은 한홍구 교수의 거취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홍구 교수 거취 문제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나 협상이 결코 아니라는 진정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손잡고’를 이어준 곳은 언론사 <시사인>입니다. 따라서 책임 주체가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등으로 확대된다면 <시사인>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추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책임 주체는 (한홍구), 조국, 은수미, 권영국 정도로 하고 단체 대표성을 굳이 추가해야 한다면 참여연대와 시사인을 대표하는 각 1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은 이 사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에 참여하는 것은 별로 그림이 안 좋습니다. 민주노총은 긴밀한 협력관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모로 적합하고, 민주노총이 이런 협력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제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모인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일종의 심의위원회) 구성원은 책임 주체들이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가안은 권영국, 김두식, 시사인 편집국장, 이선옥 등입니다. 노동단체(민주노총 또는 금속노조)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는 역할로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수혜자로서 더욱 적합한 위상이고, 현재 금속노조에서는 그에 동의하고 지원 대상 명단을 취합 중입니다.

4. 단체의 성격

처음 출발할 때부터 ‘손잡고’ 단체의 성격에 대해 기존의 운동권이 아니라 시민사회·학계가 중심이 되고, 새 노동운동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일은 피한다는 원칙을 정했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이 예상 외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원칙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식에 내빈 발언 등의 순서가 없었던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초동 제안자 모임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민주노총의 박은정 국장이 이선옥 작가에게 “권영국 변호사에게 전화로 조찬모임 날짜가 잡혔다고 확인했는데, 왜 민주노총을 조찬 모임에서 배제했느냐?”고 항의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선옥 작가는 “조찬모임은 초동 제안자 4명과 권영국 변호사가 모여 체계를 정비하는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이다. ‘손잡고’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지만, 박은정 국장은 흔쾌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권영국 변호사에게서 “유일하게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두 조찬모임에 참여해야 하고, 따라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을 참여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짐작컨대, 권영국 변호사 역시 초동 제안자들이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를 배제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손잡고’가 이미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노총을 배제하느냐?”는 발상은 운동권의 고질적 지분 개념입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과 수억 원의 재정이 모인 이상,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처럼 “기존의 운동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중심이 되고, 새 노동운동 단체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일은 피한다”는 원칙은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잡고’는 지금까지 기존의 운동 조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동원할 대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회원 형태의 구성원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기존 다른 운동 조직의 의사 결정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따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손배·가압류라는 단일 사안에 대해 법제도 개선 캠페인 등을 다양하고 신명나게 벌이고 싶은 생각에만 부풀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그러한 발상이 너무 순진했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현실에 맞게 사업의 책임 있는 논의 구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찬모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보자는 것뿐입니다. “유일하게 위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책임 주체로 할 것인지,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나 안진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을 책임 주체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조찬모임에서 자유롭게 나눈 뒤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잡고’는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가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기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잡고’의 성격은 기존의 운동단체와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단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초동 제안자들끼리 모여 논의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 생각과 무관하게,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가 책임 주체가 돼 사업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미 제가 생각했던 운동은 아닙니다.

5. 실무자 임금 문제

애초에 한홍구 교수와 제가 이선옥 작가한테 실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임의로 월 150만원의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액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선옥 작가가 실무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단 한 푼의 인건비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의 불찰이고 명색이 노동운동을 한다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석미화 씨는 ‘손잡고’ 실무가 이선옥 작가에게 모두 집중된 상황에서 한홍구 교수가 지원 인력으로 파견해 준 사람입니다. 아직 석미화 씨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얘기한 바도 없지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 수행 내용과 무관하게 사업 초반 결합한 박점규, 이창근 씨에 대한 임금도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간에 비례해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실무자 채용과 그 인건비, 사무실, 사업비 등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살림에 대한 얘기도 조찬모임에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6. 노동계 참여자들의 태도

이제 쓴 소리를 몇 마디 하겠습니다. 많이 망설이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박점규, 이창근은 유급 실무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주비모임 끝나고 두 차례 운영위원회를 열기까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실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문자 등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고, 답이 없었습니다. 300명의 제안자를 모을 때까지 두 사람은 단 한 사람의 제안자도 섭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선옥 작가가 그러한 팀워크로는 도

저희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두 사람도 동의해 실무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이선옥 작가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들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카톡 회의방에서 나간 것이 그 즈음입니다.

이후 두 사람이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손잡고’와 관련해 한홍구 교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노동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두 사람들로부터 한홍구 교수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노동자들이 생겼습니다. 실무를 돕지 못해 미안하고, 대신 뒤에서 돕겠다며 그만두었고, ‘손잡고’ 사업과 관련해 노동자들을 설득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퍼뜨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둘 중 한 사람은,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손잡고’ 내부의 한홍구 교수 문제를 제기하며 “촬영하러 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해 온다고 회의에서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추후 해당 노동자에게 현장의 문제 제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해 실무진이 확인해 보니, 한홍구 교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손잡고’가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사실 활동가들이 왕왕 현장의 분위기를 대변한다는 어법은 자신의 영향력이나 지분을 강조하는 데 유효할 뿐, 누구도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의 대표성을 가진 간부가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준비모임부터 출범식까지 실무진이 민주노총에게 부탁한 것은 정확한 손배·가압류 현황 통계와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제안자 섭외, 출범식 당일 역할과 행사비 분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실무 지원은 사실상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간부는 약속한 날에 자신이 맡은 역할을 이행한 적이 별로 없었으며, 출범식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실무진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해 실무진이 많이 곤란해 했습니다. 요청한 실무는 뒷전에 둔 채, 국회의원들에게 연락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든가, 국회의원들한테는 자신이 직접 연락하겠다는가, 운영위원회에 특정 정치 조직의 관계자를 참관인으로 참석시켜도 되겠느냐라든가(곤란하다고 했더니 다음 회의에는 사전 의논 없이 정당 관계자를 데리고 왔고, 그 당 관계자까지 지금 운영위원 구성원처럼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의 얘기만 주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기금이 급속히 모이게 되고, 실무진이 기금 심의를 위해 항목을 만들어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하자, 노조와 개인을 다 열어놓고 그 조건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준비모임부터 ‘아름다운 재단’을 통한 모금은 노조가 아닌 개인에 대한 지원이라고 수차례 보고했고(단체 지원은 모금 목적상 불가능합니다),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급속노조는 이미 현황 파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범식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모두 바쁜 시간에 온 사람들인데 빨리 국회의원들 소개부터 하라”고 진행자를 채근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 걸고 보위하는 민주노총의 실태인가 싶어 서글펐습니다. 그 간부가 지금 ‘손잡고’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했다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의 몸에 밴 지분 개념 때

문이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가 좀 지나칩니다.

반면, 금속노조 참여자는 요청한 자료나 실무적인 역할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해 주고 있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금속노조는 수혜자로서 책임 주체나 심의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든 관계없다, 우리가 할 일을 ‘손잡고’에서 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망설인 끝에 최대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했겠으나,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에 관한 내용들이 조찬모임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2014. 3. 2.

하종강 드림...

***** 별첨 #3-2

여러 선생님께

그동안 ‘손잡고’ 관련해서 모두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발족식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효리 씨의 아름다운 마음에 너무나없이 나서는 것을 보거나
발기인 참여해 주십사 정말 몇 년 만에 전화 드렸을 때
흔쾌히 승낙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중요하고 모두들 절실하게 느끼는 일을 왜 그렇게 ‘손놓고’ 있었나
만시지탄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갖고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 한 1년 여 전부터
하종강 선배께 무얼 좀 해보라고 재촉하기도 하고
제가 일하는 평화박물관에서 우리라도 일을 만들어보자고
몇 차례 얘기하기도 했지만 잘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쌍용차 47억 손배 판결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종강 선배께 좀 강하게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설에 모여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께 미안한 마음이라도 담고
또 쌍차나 다른 사업장에서 손배 걸린 분들께 위로하는 떡국이라도 대접하자
얘기했던 게 단초가 되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은 당장 손배가압류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의 괴리가 심각해진 것이
손배가압류가 횡행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한국 민주주의가 취약해진 중요한 이유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런 고민을 담아 줄저 <지금 이순간의 역사>에서
노동과 시민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학교에서도 현대사 강의에서 노동문제의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저나 하종강 선배나 여기저기 강의다니기 바빠 실무를 챙기기 어려운데
다행히 이선옥 작가가 아픈 다리 이끌고 발벗고 나서주어
번잡한 실무를 맡아주셨습니다.
그 사이 저나 하종강 선생, 이선옥 작가가 서로 오랫동안 잘 아는 사이인지라
같이 모이지 못한 채 전화로만 일을 진행시켜 왔는데
몇 분 더 모여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자고 했던 게
언론에 먼저 잘못 나가고 일이 커지면서 1월 24일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27일 인터넷에 평화박물관에서 집단사직한 활동가들이 글을 올렸습니다.
대개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평화박물관 이사회와 제가
활동가 한 명을 ‘부당해고’ 한 것에 대해
다른 활동가들이 항의의 뜻으로 집단사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길게는 6년, 짧게는 몇 달이지만

저와 같이 활동했던 활동가 여럿이 한꺼번에 떠나게 된 것은
 제가 여러모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터넷상에 공개한 성명서에 대해서도
 몇몇 중요부분에서 입장의 차이를 떠나
 사실과 다르거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누락된 부분도 있었지만
 평화박물관 이사회는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 되었건 이사회로서나 실제 이사회 실무를 담당해 온 저로서도
 일이 극한에 이른 데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고
 하나하나 입장 차이를 밝히거나 사실과 다른 점을 해명한다면
 또 다른 논란과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기에
 할 말은 많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손잡고’에도 일정한 영향이 있어
 아직 평화박물관 회원들께도 이사회에 입장을 전하지 않고 있지만
 그간 ‘손잡고’ 일을 핵심적으로 해 오신 분들께
 간단히 아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규채용된 큐레이터 활동가가 1년 계약직인지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한참 지나 계약직임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식의 채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하나 부당하고 부정은 평화박물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체가 아니라
 운동단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전 사무처장의 사임을 둘러싼 일련의 문제를
 활동가 내부의 신뢰의 문제가 더 이상 같이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같이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람과
 활동가로서의 결함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가 평화박물관에서 활동비를 받았다는 점만을 본다면
 고용-피고용 관계라 주장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운동단체에서 활동가의 결함은 이상과 신뢰와 규율의 결함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와 도저히 같은 지붕 밑에서 생활할 수 없기에
 제가 평화박물관에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른 활동가들이 저를 나가지 말라고 잡았습니다.
 저는 둘이 같이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남는다면 그가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백년간약을 맺고 자식을 낳고 살던 부부 간에도 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부부 간의 결별을 이혼이라 부르는 것처럼
 활동가 내부의 결함의 해소를 ‘부당해고’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말 ‘부당해고’라면 왜 노동위원회에 가지 않았을까요?
 저희 단체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라 자세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발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모신 분들이 절반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분들 대부분이 평화박물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다.
한두 분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의 손을 잡지 않겠다 말하셨지만
거의 다 저를 위로하거나 같이 걱정해 주시면서
참 중요한 일을 잘 시작했다고 기꺼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0일 경 조국 선생께 전화로 평화박물관 내의 사정을 설명하고
제가 '손잡고'에서 전면에서 나서 활동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으니
수고스럽지만 조 선생께서 처음에 의논했던 것보다
역할을 확대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렸고
조 선생도 이를 흔쾌히 수락하셔서
모금 통장 등을 조 선생의 이름으로 개설하였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 제일 먼저 말을 꺼낸 게 제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관만 벌려 놓고 뒤로 빠지는 것 같아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큰 짐을 지우고 2선에서나 돕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2월 25일

활동가 계약서

1. 양 당사자


대 표	성명	이해동
	사업장명칭	(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99-1
활동가	성명	윤지선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2.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활동계약기간: 2014년 6월 2일~
2. 활동장소: 평화박물관
3. 업무내용: 평화박물관의 활동가로서의 기본책무와 손잡고 담당
4. 활동시간 : 9시30분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평화박물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는 근로시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함
5. 휴일.휴가 : 매주 토요일 휴무/ 기타 국가지정 공휴일/ 월차 및 연차를 보장함, 다만 평화 박물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는 휴일.휴가를 탄력적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음
6. 임 금
 - 월급: 1,145,000 원
 - 상여금: 연 100%
 - 기타급여(제수당 등): 없음(✓)
 - 임금지급일: 매월 1일(휴일의 경우는 지급월 기준으로)
 - 지급방법: 직접지급(), 예금통장에 입금(✓)
 - 평화박물관의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실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시민단체 재정의 궁핍함, 계산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 휴일 및 연.월차 휴가근로수당은 상기 합의한 기본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7.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시민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의상실에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함

2014 년 06 월 02 일

대 표: 이해동 

활동가: 윤지선 (인) 



***** 별첨 #5

계약종료 예고 통지서

- 성명: 윤지선
- 생년월일: 1985년 1월 16일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동 장군봉 4길 40
- 고용기간: 2014년 6월 10일 ~
- 업무: 평화박물관 활동가로서의 기본책무와 손잡고 담당
- 내용

평화박물관은 2014년 3월 28일 손잡고 제1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손잡고에 사무실과 활동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2014년 6월 30일 윤지선 활동가를 채용해 손잡고 업무를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 9월 1일 제18차 손잡고 운영위원회는 “9월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손잡고 2기 체제에 대한 안을 9월 말까지 준비하고 10월 논의를 거쳐 11월 2기 체제를 출범시킨다. 출범 전까지 이수호 대표가 운영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노란봉투캠페인 사업을 마무리한다. 윤지선 활동가에 대한 평화박물관 파견 고용계약은 9월로 종료하며, 2기 체제출범 전까지 손잡고에서 고용하여 노란봉투캠페인 잔여업무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평화박물관은 제18차 손잡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윤지선 활동가에 대한 고용을 10월 11일까지 유지하고, 이후 평화박물관과 윤지선 활동가의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9월 11일

평화박물관 대표 이 해 동

손잡고 2기 운영제안서 (2015년 10월 20일)

*** 손잡고 2기 전면 재구성 제안

- 1기 손잡고는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둠
 - 시기적절한 대응 (사실은 만시지탄이라 적극적 호응을 받음)
 - 이효리의 손편지 덕분에 모금에서 큰 성과:
- 7월 이후 심각한 문제점 노출
 - 활동가 문제
 - 1기 대표단 및 운영위 심각한 신뢰의 위기
 - 평화박물관으로서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의식과 회의감
 - 1기 대표단과 운영위는 총사퇴하는 것이 마땅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약으로 손배가압류를 넘는 새로운 대응 필요
 - 노동을 매개로 한 장기집권 전략: 야당파괴 및 진보진영 고립

*** 2기 손잡고의 역할과 과제

- 손배가압류 문제 여전히 미해결: 지속적으로 안고가야
- 손잡고를 처음 제안한 취지는 당장 현안으로 절박한 손배가압류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노동과 시민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 를 모색한 것: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초래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응
-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약: 시민사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 시민사회에서 손잡고 이외에 노동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집단이 있는가
- 손배가압류로 고공농성이나 파업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쫓아다니는 식의 활동을 지양
- 손잡고의 활동 중심은 노동현장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되어야: 노동이슈를 가지고 시민사회에서 설득하고 절박성을 전달해야

*** 2기 손잡고의 활동방향

- 손배가압류 문제를 입법활동에서 계속 추진
- 청년노동문제
- 민주노총 등 기성 노동운동이 계도화 되어가는 경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노동의 시민권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 2016년 20대 총선에서 노동문제 어떻게 공약화 할 것인가
 - 총선에서 노동문제 공약화하기 어렵는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2017년 대선에서 노동문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공교육에서 노동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2016년에 교육감 참여하는 심포지움 준비
- “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능가하는 연대투쟁 나서자”

*** 2기 손잡고 전면 재구성 방안

- * 손잡고의 독립은 가능한가

- 단체는 언제 어떻게 독립할 수 있는가
 - 중심인물: 비전과 리더십 / 책임감
 - 중간관리 능력
 - 재정 / 단체재정에 대한 책임감과 유지능력
- * 현재의 손잡고는 독립능력 없다고 판단됨:
 - 책임성과 명망성과 집행력을 갖춘 시민사회 인사가 단체를 맡아야
 - 또는 일정한 신망과 규모가 있는 단체가 사무국을 맡아야

- * 평화박물관은 손잡고 사업에서 더 이상 사무국단체를 맡지 않을 것임
- * 하나의 단체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노동과 시민의 만남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신망있는 단체 또는 신망과 집행력 있는 개인이 2년 단위로 사무국을 책임지고 인권, 교육, 문화 등 개인 또는 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영역을 중심으로 활동해나가도록 한다.

***** 이관할 자원**

- 2014~2015년 모금액: 약 6천만 원
- 만해상 상금: 약 5천만 원
- CMS 계좌: 월 약 300~350만 원

***** 이관에 따른 사업계획:**

- * 2015년 모금액에 의거한 사업계획: 대강을 잡아서 이관해주어야 2기 손잡고가 빨리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음.
- * 만해상 상금: 약 5천만 원: 목돈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성을 갖는 사업을 개발하도록 권유: // 금고 또는 기금으로 운영
 - 긴급 의료비지원 금고
 - 열악한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교육 지원
 - 노동교육 강사양성
- * CMS: 2기 사무국을 맡는 단체에서 계획을 세워 운영: 확대방안 포함
 - 인건비
 - 사무국 유지비: 공간 및 최소활동비

***** 2016 사업계획**

- * 제2회 노란봉투 연극제: 2,000만원
- * 노동교육 심포지움: 1,000만원
- * 노동현장 간담회: 300만원
- * 노동을 주제로 한 미디어콘텐츠 개발: 2,000만원
 - 주제를 바꿔 정기공모전 형식으로 회당 300만원: 4~5회 개최
 - 첫 알바를 나가는 동생들에게
 - 노동교육, 언제까지 헤리에게 맡기실래요?
 - 나의 알바 분투기
 - 나의 학자금 상환 20년 계획서
- * 퍼포먼스: 500만원
- * 시민사회를 향한 일상적인 홍보와 연대는 CMS 비용 중에서 아껴서 확보해야
- * 모의법정은 2016년 하지 않음

***** 별첨 #7

No	선 ▾	거래일시	적요	의뢰인/수...	출금액(원)	입금액(원)	잔액(원)
1	●	2015.12.21 16:00:58	인터넷출금이체	은수미	17,583,529	C	0

***** 별첨 #8

평화박물관

: 2기 손잡고 사무국

발신: 평화박물관(1기 손잡고 사무국) 02-735-5812

참조: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제목: 손잡고 사무국 이관에 따른 정산처리

날짜: 2016년 4월

2016년 4월 2일 박래군 상임이사, 안진걸 협동처장과 평화박물관 한홍구 이사 사이에 합의된 내용의 정산내역입니다.

1. 손잡고 지출 내역

	급여	국민보험	건강보험
1407	1,475,000	51,525	34,293
1408	2,047,500	51,525	51,439
1409	1,475,000	51,525	34,293
1410	1,475,000	51,525	34,293
1411	1,475,000	51,525	34,293
1412			
1501			
1502	1,490,000	26,100	35,206
1503	1,490,000	26,100	35,206

평화박물관 사무처 지급 손잡고 활동가 급여 및 사업장부담 보험료 : 합계 11,496,34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계상하지 않음)

및 각종 공과금 사용료 : 1402~1508 : 19개월 * 30만원 = 5,700,000원

총 합계 :

11,496,348 + 5,700,000 = 17,196,348원

2. 손잡고 CMS 월 회비 (마지막 정산 이후)

1512 3,588,325

1601 3,613,820

1602 3,500,360

1603 3,468,275

4개월간 총 월 회비 : 14,170,780원

평화박물관이 지불할 금액

14,170,780 - 17,196,348 = -3,025,568원

***** 별첨 #9

손잡고 정산 서류

받는사람: "안진걸" <ngo0810@pspd.org>, "습자유" <pi3170@gmail.com>

16-04-19 11:58

일반 첨부파일 1개 (14.37KB) 모두저장

손잡고 정산관련-160408-박래... 미리보기

지난번 박래군, 안진걸 두 분과 나눈 이야기 후 합의된 정산서를 보내드립니다.

공간사용료와 공과금을 포함하면 약 300만원 가량 평화박물관이 더 받아야하는데

이것은 4월분에서 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내용에는 손잡고 2기 사무국 연락처가 들어가야 할 텐데

보내주신다 하시더니 잊으셨나보네요.

되도록 빨리 보내주시고 오는대로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cms 출금업무는 지난번 합의한 대로

2016년 5월분까지만 처리하고 6월 1일 부터는 자동 회원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4월 중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려야 하니

2기 손잡고 사무국 연락처를 빨리 주시고

cms시스템도 차질없이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안처장님은 지난번 보내주시겠다고던 정관 잊지말고 보내주세요..

회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공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평화박물관을 통해 손잡고 활동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잡고 1기 운영위원회는 2015년 11월로 활동을 종료하였고, 평화박물관 역시 1기 사무국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평화박물관은 손잡고 관련 모든 재정과 업무를 새로 출범하는 손잡고 2기 운영위원회에 이관하게 됨에 따라 2016년 6월 1일 이후 더 이상 손잡고 관련 CMS 업무를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부터 평화박물관의 손잡고 회원은 자동탈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대단히 번거로우시겠지만 2기 손잡고가 새로 마련하는 CMS 시스템에 새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재가입 관련한 문의 사항은 2기 손잡고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사무국 연락처(담당자: 연락처:0000000000000000)) 노동자들의 처지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변함 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손잡고 1기 사무국을 맡았던 평화박물관 드림